

웹툰출판미디어과_22229028_강기석

가족이 맞나요?

(일상툰)

가족이란 제도 속에 함께 살아가는
각자도생의 삶.
소통방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자화상들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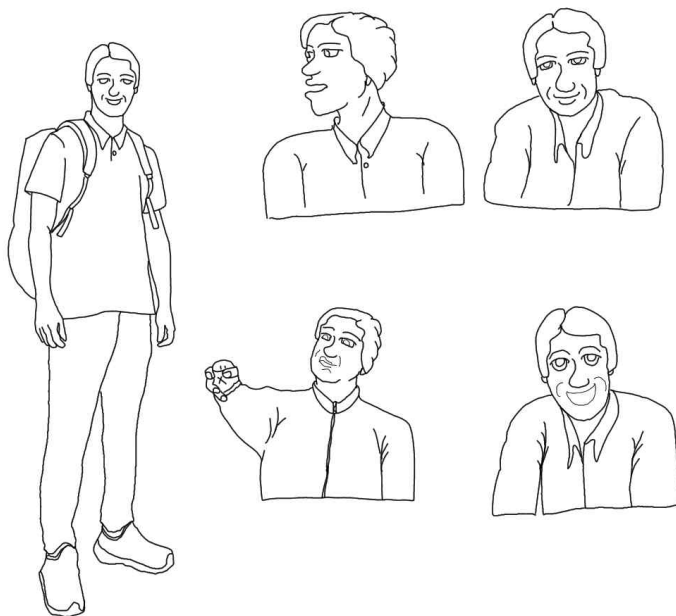
우린 언제 서로의 관심과 배려를 회복하고
행복해질 수 있을까요?

인물소개

김정도



이건노



작품명: 가족이 맞나요?

주제 및 기획의도: 현대의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다.

무관심과 나태가 만들어내는 오해와 미움이
어디서 생기고 어떻게
해소될까 생각해본다.

로그라인: 똑같은 수준의 할아버지와 손주의 고군분투 하루살이
왜 나만 힘든가?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세대감성
두 세대의 대결같은 일상이 펼쳐진다.

주 타겟층; 20대 이상

총 회수:

장르 : 일상툰

등장인물:

이건노(65) 한 시대에 주인공 58 개띠, 이제 은퇴하고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받아

. 첫 나들이다. 어려서 고생을 많이해서 매사에 조급하고 쫄쫄하다. 그냥
넘어가는 일 없다.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만 , 정에 약하고 칭찬에 약하다.
지난 시절이 어땠는지 그의 행동과 입을 보자.

김정도(15) 요즘 대세 MZ세대, 코로나 블루를 겪고 서서히 부활하는 야성의 모습,

어쩌면 오래전 할아버지의 어릴때 모습은 아닐까? 늘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
하다. 게임에 몰두하고 늘 폰만 바라본다.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?
친구도 가족도 맘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.
피해의식까지 ㄷ ㄷ 까도까도 끝이 없구나.
이래서 사춘기인가?

줄거리:

.오늘 주말 아침. 세상은 평온하다.

여기 두 세대(할아버지와 손자)가 맞이하는 아침은 어떠한가?

룰루랄라 이건노씨는 생각만해도 즐거운 외출을 준비중이다.

친구들과 만보걷기 모임약속이 있다.

오늘 서울 지하철 첫 무료 승차! 뭔가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.

나라님도 나를 인정해주신다는 긍지?

한편 정도는 머리가 아프다. 녀 늦게 일어났나?

아니 지끈거린다. 왜 하필 용돈도 떨어졌는데 엄마 아빠는 벌써 사라졌다.

어디서 돈을 구하나? 할아버지한테 또 손 벌리기도 어렵다.

하루도 못넘긴다고 핀잔을 주실테니. 오늘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버티나?

저녁에 식탁에서 가족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될까?

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식사자리에선 이 평온함이 계속될까?

일상 속에서 모두 안녕하신가?

세대간의 충돌과 화합을 그려보다.

